

케네디는 여전히 정치투신을 권할까

임성호
교수 · 정치학



정치학 교수가 학생에게 정치권으로의 진로를 권하지 않는다?

이런 웃기고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정치학에서도 의회·선거·정당을 전공한바, 누구보다도 정치 투신을 권해야 할 사람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제자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되는 데 돕거나 격려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몇몇 제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도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선 졸업 후 정치권에 가겠다는 학생을 보면 선뜻 긍정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다양한 대안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정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후에 가는 게 낫겠다고 조언한다. 오늘날 정치권의 개탄스러운 모습이 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켰고, 그것이 제자와의 진로 상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67년 전 미국은 이와 정반대 상황이었다. 195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시러큐스 대학 졸업식에서 정치 투신을 권하는 명연설을 남겼다. 명문 대학에서 교육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졸업하는 엘리트답게 사회에 공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권에 봉사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실천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고소득 기업인 혹은 안정적인 공무원에 비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어렵겠지만, 사회 전체를 위한 사명감을 안고 정치권으로 진출하라는 말을 케네디 특유의 명문으로 설득력 있게 전했다. 이 연설은 그 후 정치권에 몸담는 사람을 위한 격문으로 널리 애호되었다.

당시 미국은 이런 조언이 공감을 자아낼 만한 사회였다. 2차세계대전 후 자유 진영을 이끄는 초강대국으로서 정부와 정치권이 광범위하게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던 때였다. 정치권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도 경쟁을 펼치며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하는 데 모자람이 없었다.

물론 대립이 때론 격렬해지기도 했으나 상식과 예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국정 파트너라는 인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적 정신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었던



정치권의 양극적 논리에 휘둘러 저열한 정파 대결의 부품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만큼, 정치권도 양극적 대결보다는 중도 수렴의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 들어가 상생의 가치를 지향하고 나름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케네디가 사회 초년생에게 정치권에 입문하기를 서슴없이 권해도 이상할 게 없던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가? 미국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선(善), 상대는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 속에서 정치인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며 싸우는 걸 일상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런 싸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힘들까?

지켜보는 유권자도 짜증 나지만 실행하는 정치인도 괴로울 것이다. 케네디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 것 같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집단주의적 경직성이 훨씬 더 세, 여야 양극 대결 정도가 극심하다. 한국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악스럽게 자기편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고 상대방에 모든 허물을 돌리는 반지성적 행동을 해야 한다. 마치 조폭 행동대원처럼 저돌적으로 앞장서야 공천을 받고 당내 위상을 높이며 정치인으로 살아남기가 좋다. 자기 양심을 지키고 당내 이

견을 제기하면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겠으나, 오래 지나지 않아 주변으로 밀리고 정치권에서 존재가 사라진다.

이런 정치적 야만의 시대에 정치학 교수는 난감하다. 졸업생에게 정치계 투신을 적극적으로 권할 수가 없다.

양극적 집단 간의 패싸움에 발을 디터 개인 양심과 조직 논리 사이에서 힘들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칫 도태될 수 있는 냉혹한 곳에 제자를 보내기가 저어진다.

물론 이미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캠프에서 훈련받고, 인턴이나 비서관으로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정치권 네트워크에 들어갔거나 강한 신념으로 정치 투신을 원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필자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 반면, 아직 긴가민가 진로를 탐색 중인 학생이라면 정치권 진입을 흔쾌히 권하기가 힘들다.

경직된 정치 양극화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정치권을 견제해 순화시키고 체제 전반에 조화와 균형의 미를 퍼뜨릴 수 있는 여타 직종의 선택이 바람직해 보인다.

공적 영역에 있되 정파성을 배격

하는 학자, 교사,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정책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정치권에 견제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들이 각자의 직업윤리에 최선을 다하고 권위를 잃지 않을 때 정파적 대결에 찌든 정치권의 자의성을 막을 수 있다. 사적 영역의 기업인, 회사원, 자영업자, 과학기술자 등도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킬 때 정치권의 개입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치권 바깥에서 각자의 입지를 탄탄히 다진 후 정치권에 진입하면 양극적 집단주의에 휩쓸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품위와 원칙을 지키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독자성 없이 어영부영 양극적 정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케네디도 시러큐스 졸업생에게 다른 진로를 권다가 정치에 투신해도 좋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정치권의 양극적 논리에 휘둘러 저열한 정파 대결의 부품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차원의 정치에는 자기 양심을 지키는 고품격의 사람이 필요하다. 사회 진출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유념했으면 한다.

“

각자의 직업윤리에 최선을

다하고 권위를 잃지 않을 때

정파적 대결에 찌든 정치권의

자의성을 막고 개입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